

## 2. 금융·외환시장

### 가. 국제금융시장

#### 장기금리 하락

2019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미 연준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4/4분기 들어 미·중 무역협약의 기대, 고용 및 서비스업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반등하였다. 유로지역의 경우 독일 장기금리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등으로 하락 폭을 축소하였다. 일본 장기금리는 일본은행의 장단기금리운영 방침(0±0.2%)에 따라 대체로 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 및 EMBI+ 가산금리는 글로벌 저금리 지속에 따른 수익추구 경향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표 II -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2018		2019		
	3월	6월	9월	12월	
장기금리					
(미국)	2.68	2.41	2.01	1.66	1.92
(독일)	0.24	-0.07	-0.33	-0.57	-0.19
(일본)	0.00	-0.08	-0.16	-0.21	-0.01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sup>1)</sup>	248	226	231	220	195
(신흥국 CDS 프리미엄) <sup>2)</sup>	207	178	169	207	173
(신흥국 가산금리) <sup>3)</sup>	445	405	406	400	298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4개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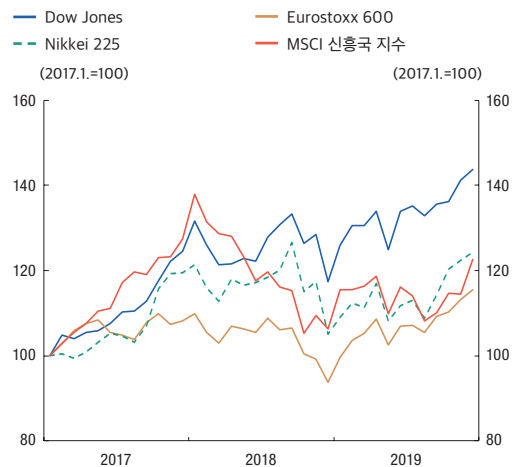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 글로벌 주가, 선진국·신흥국 모두 상승

미국 주가지수는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및 양호한 기업실적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수차례 경신하며 전년대비 22.3% 상승하였다. 유로지역 및 일본의 주가지수도 각각 23.2% 및 18.2% 상승하였다.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는 9월 이후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 주요 신흥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투자심리가 상당폭 개선되면서 2018년 말 대비 15.4% 상승하였다.

그림 II - 15.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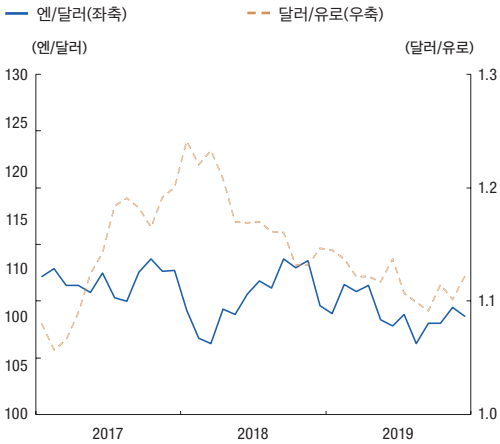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미 달러화 유로화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

미 달러화는 유로지역 경기 둔화 우려 심화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강세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홍콩시위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으로 소폭 약세를 보였다.<sup>16)</sup>

16) 미 달러화는 2019년 중 유로화에 대해서는 2.2% 절상, 엔화에 대해 0.8% 절하되었다.

그림 II - 16. 주요 환율



자료: Reuters

## 나. 국내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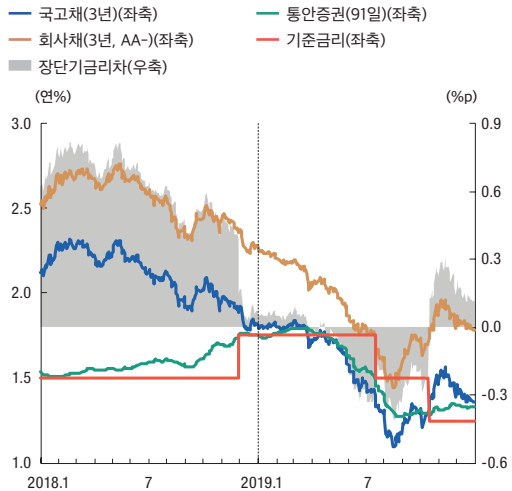
### (1) 금리

#### 국내 장기금리 하락

국고채(3년) 금리는 2019년 말 1.36%를 기록하면서 2018년 말(1.82%) 대비 큰 폭 하락하였다. 연중 동향을 살펴보면 연초 이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그에 따른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에다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채권형펀드 자금과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이 큰 폭 순유입되면서 채권수요가 증가한 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채(3년) 금리는 8월 19일 사상 최저치(1.09%)를 기록하였다. 8월 하순 이후에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향후 채권공급 확대 우려,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11월 중순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 받는 모

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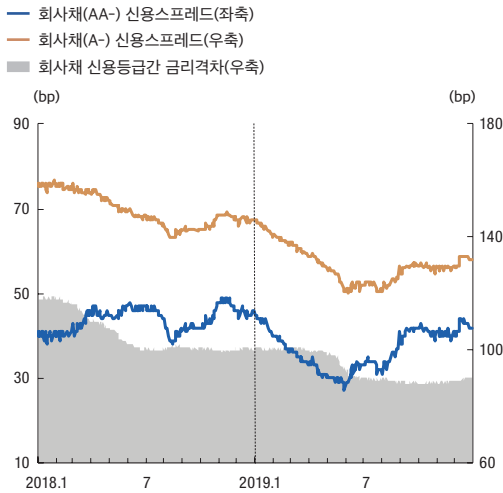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장기금리 움직임, 기준금리 인하 등에 영향을 받아 8월 중순까지 큰 폭 하락한 후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그림 II - 17.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sup>1)</sup>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회사채(3년) 금리는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금리메리트 부각, 채권투자 자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는 견조한 투자수요 등으로 5월 말까지 상당폭 축소되었다가 이후 낮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 - 18.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1)</sup>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sup>2)</sup>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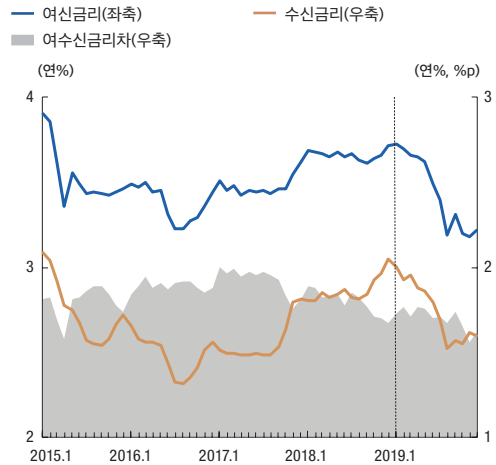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 은행 여수신금리 하락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하 및 장·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아 큰 폭 하락하였다. 2019년 12월 여신 및 수신금리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50% 포인트, 0.45% 포인트 하락한 3.22%, 1.60%를 나타내었다. 여신금리가 더 큰 폭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축소되었다.

그림 II - 19.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2) 주가

### 코스피 등락 후 상승

코스피는 대외요인의 전개양상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 연준의 금리 인상속도 조절 시사,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4월 하순 이후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타결 무산 및 양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조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이 이어지며 큰 폭 하락하여 8월 7일에는 2016년 초 이후 최저치(1,910)를 기록하였다. 8월 하순 이후 미·중 무역협상 재개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증대되면서 상승 전환하여 2018년 말 대비 7.7% 상승한 2,198로 마감하였다.

코스닥지수는 대외요인의 전개양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2018년 말 대비 0.9% 하락한 670으로 마

감하였다.

전년에 이어 금리 메리트가 지속되면서 증가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다.

그림 II - 20.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KOSCOM

### (3) 금융기관 여수신

#### 은행, 비은행 모두 수신 증가폭 확대

은행 수신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기예금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신 예대율 규제の影響으로 은행들이 자금조달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2018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자들의 수익 추구현상이 강화되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펀드의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채권형펀드는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18년 카타르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확산으로 감소하였던 MMF는 큰 폭 증가로 전환되었다.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표 II -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수신 <sup>1)</sup>	100.2	80.8	79.5	91.6	106.3
수시입출식	92.0	60.2	34.0	10.9	65.9
정기예금	-8.2	19.4	28.8	72.2	48.3
시장성수신 <sup>2)</sup>	15.8	3.9	17.7	7.8	-14.6
자산운용회사	44.4	47.6	27.9	53.8	98.6
MMF	11.0	10.9	-7.0	-7.7	15.2
주식형펀드	2.1	-7.7	4.2	7.3	2.5
채권형펀드	14.4	18.7	-8.6	6.4	15.7
기타펀드 <sup>3)</sup>	16.0	29.6	45.3	48.3	68.0
상호저축은행	5.3	6.6	6.9	8.6	6.1
신용협동기구 <sup>4)</sup>	27.7	35.3	44.6	39.7	60.7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2019년 중 기업대출은 2018년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이 직접금융시장(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노력,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도 가계대출 규제의 반사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둔화되었다. 예금은 은행은 증가규모가 2018년보다 소폭 확대되었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감소로 전환하고 기타금융기관 등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예금은행은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하반기 중 서울지

역 주택매매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DSR 규제 도입 이후 소득기반 대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지속, 기존 중도금 대출 상환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으며, 기타금융기관 등도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표 II - 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업대출	68.1	53.8	82.2	91.2	98.5
은행	50.0	23.9	40.4	46.7	47.7
대기업	-4.3	-9.9	-3.7	6.9	-1.8
중소기업	54.3	33.8	44.0	39.8	49.4
비은행 <sup>1)</sup>	18.1	30.0	41.8	44.5	50.8
가계대출 <sup>2)</sup>	112.9	131.9	100.0	76.8	57.8
예금은행	44.1	53.7	43.3	52.4	54.6
(주택담보대출)	36.1	40.8	21.6	30.1	39.7
(기타대출)	7.9	12.9	21.6	22.4	14.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sup>3)</sup>	22.4	42.6	22.6	6.8	-4.5
(주택담보대출)	2.6	14.2	10.8	-3.9	-10.4
(기타대출)	19.8	28.4	11.8	10.7	6.0
기타금융기관 등 <sup>4)</sup>	46.3	35.5	34.1	17.5	7.6

주: 1) 공공 및 기타대출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4) 외환시장

##### 원/달러 환율 2018년 말 대비 상승

원/달러 환율은 연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4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1,19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였다. 6월 중순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증대되면서 1,1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7월 들어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 등으로 1,220원대까지 재차 급등하였다.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상황, 홍콩 및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등락하다가 12월 들어 미·중 무역협상 합의 발표 이후 1,1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2019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56.4원으로 2018년 말(1,115.7원) 대비 3.6% 상승하였다.

한편 원/엔 환율(100엔당)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16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반락하였다. 2019년 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1,059.6원(KEB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으로 2018년 말(1,008.8원) 대비 5.0% 상승하였다.

그림 II-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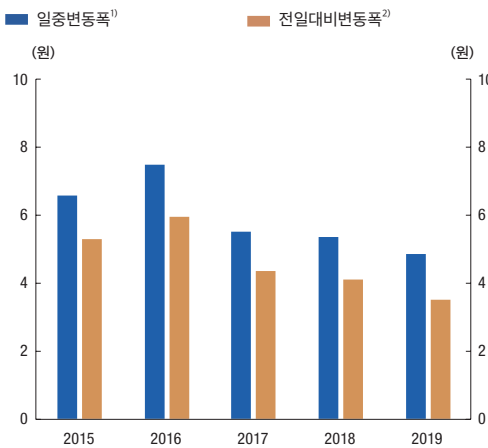


주: 1) 원/달러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100엔은 KEB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KEB하나은행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연평균 각각 4.9원, 3.5원을 기록하여 2018년 (각각 5.4원 및 4.1원) 대비 축소되었다.

그림 II- 22.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일중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대비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외환스왑레이트 상승, 통화스왑금리 하락

외환스왑레이트<sup>17)</sup>(3개월물)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외금리 역전폭 축소 등으로 상승하면서 2018년 말 대비 0.41% 포인트 상승한 -0.92%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sup>18)</sup>(3년물)는 국고채 등 장기금리 하락,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통화스왑 수요 증가 등으로 8월 중순 0% 수준 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국고채 금리와 함께 반등하면서 2018년 말 대비 0.43% 포인트 하락한 0.72%를 기록하였다.

그림 II- 23.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융개(주), 한국 톨렛프레본 외국환중개(주)

17)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18)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LIBOR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